

광주시, 세계 수준 '국가AI데이터센터' 서비스 개시

첨단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국내외 기업들 광주로...산업생태계 활성화 기대 국산 AI반도체 개발·데이터센터 실증·구축 병행도

세계적 수준의 광주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가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한다. 광주시는 14일 "첨단3지구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이하 AI집적단지) 내 핵심시설인 세계적 수준의 국가AI데이터센터 서비스를 15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3144㎡의 2층 구조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260랙 규모의 전산실에 6메가

와트(MW)의 전력이 소요된다. 사용자가 통신 회선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망중립 데이터센터로, 수도권과 동일한 네트워크 품질 신뢰성과 접근성을 제공한다. 또 20페타플롭스규모의 고성능컴퓨팅(HPC)과 68.5페타플롭스 규모의 GPU 클라우드 혼용 방식으로 구축돼 총 88.5페타플롭스연산자원과 107페타바이트(PB) 저장공간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규

모를 자랑한다. 데이터센터에선 앞으로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며, 엔비디아의 최신 성능 가속기 'H100'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도입한 덕분에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데이터 학습, 분석 및 활용 등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난 10월23일 전체 구축량의 50%인 연산자원 44.3페타플롭스, 저장공간 53.5페타플롭스 규모의 자원구축과 성능테스트를 마쳤으며, 오는 12월에는 추가로 가속기 24페타플롭스와 2024년 1분기에 20페타플롭스 규모의 고성능컴퓨팅(HPC)이 구축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1000여 개의 AI 기업을 지

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AI를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비용의 연산자원과 저장공간 및 개발환경을 무료로 제공받고 개발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또 자원이용 기관(업) 선발을 위해 지난 10월 공모를 진행하고 263개 기업에 가속기 21페타플롭스와 스토리지 8페타바이트 자원을 할당할 예정이다. 1페타플롭스는 초당 1000조번의 수학 연산처리를 뜻하며 1페타바이트(PB)는 67기바이트 영화 17만4000편의 영화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속·저전력 국산 AI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적용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클라

우드 프로젝트' 일환으로 데이터센터 내에 11페타플롭스 규모의 AI반도체(NPU)팹 실증·구축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 1단계 인프라의 고도화와 도시규모의 실증을 목표로 AI 2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용역도 준비 중이다. 김승용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시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집적단지 인프라와 도시규모의 실증환경을 조성해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은 실증환경을 활용해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AI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AI 대표도시 광주가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오른쪽 두번째) 전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2024년 국회 증액 핵심사업들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뒤 건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내년 '국비 9조 시대' 목표 연일 강행군

국회 지도부 이어 기재부 예산실에 핵심사업 건의 17일 여야 원내대표 만나 예산 증액 협조 요청키로

전남도가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2024년 국비 9조원 시대 달성을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9일 국회 지도부를 만난데 이어, 14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담회를 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과 간담회에서 김영록 지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년보다 국비 4.9%가 증가한 8조6000억원이 반영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남의 현안 사업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

한 질 검토해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가 이날 국회 증액 핵심 사업으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 (총사업비 2조6000억원·2024년 10억원) 사업을 건의했다. 이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진행될 국토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국가계획(2026~2030년)'에 반드시 포함시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예산 반영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상생 사업인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총사업비 미정·2024년 10억원)도 요청했다. 또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

립' (총사업비 1001억 원·2024년 20억원)도 부탁했다. 타당성 재조사를 지난 7월에 통과한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설립을 위해 총사업비의 확정과 함께 부지 매입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전남은 향토음식의 본고장으로서 향토음식의 체계적 발굴·보존과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한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 (총사업비 150억원·2024년 5억5000만원)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에너지 분야 글로벌 인재 육성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부 출연금 전액 지원' (2024년 정부안 167억원 대비 127억원 증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17일 여·야 원내대표,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추가로 면담을 갖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체육시설 부적절 운영·버스 블랙박스 영상 '도마'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체육시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와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유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지현 광주시의원(민주·광산1)은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등산 골프장과 남구 다목적 체육시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이나 사후 환경영향평가 점검과 다르게 인공조명을 설치·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광주시도시공사가 어등산 관광 단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야간 개장을 전제하지 않았다"며 "야간 개장을 하더라도 일몰 후 2시간 이내로 운영 시간을 제한할 것과 빛 공해를 저감하는 조명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이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어등산관광단지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3월 이뤄졌다. 골프장 운영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일몰 후 2시간 이내 운영'이라는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적시했고, 자정까지 운영하고 있어 빛 공해 문제가 야기되는 데도 점검·제제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남구 진월동 진월제 일부를 매립한

부지에 만들어진 남구 다목적체육시설도 야간 운영 시간이나 조명 설치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무단별하게 유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건설위 소속 안평환 광주시의원(민주·북구1)은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영상이 불법으로 유출돼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시민 생활이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어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감사장에서 재생한 자료 화면 영상에는 버스가 정차하자 우르르 달려가는 학생들의 얼굴, 사고 현장을 지나는 차량 번호판 등이 가림 없이 노출돼 있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자동차에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승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관련법은 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 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출 영상이 블랙박스 영상 인신 파악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 시립 제2요양병원 정상화 노조 결단 요구

광주시가 시립 제2요양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환자와 함께 고락을 같이한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병원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광주시도 대응적 차원에서 상생 방안을 찾아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요양병원은 개설 이후 10여년 간 전남대병

원에서 수탁 운영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31일 위탁 기한이 만료되자 새로운 수탁자를 공모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전남대병원과 다음 달 31일까지 한시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7월부터 50일간 파업을 진행해 환자들이 전원, 퇴원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부분 휴업 상태로 병원이 운영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